

삼성물산, 중국 내륙 유전개발 착수

10월18일 석유공사 공동 마황산 서광구 석유 개발 ... 매장량 230만배럴

삼성물산 상사부문과 한국석유공사는 10월18일 중국 Beijing 서부 내륙에서 1000km 떨어진 회족 자치구 Yanchi 소재 마황산 서광구에서 석유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마황산 서광구의 가채 매장량은 230만배럴로 하루 생산량 800배럴을 시발로 앞으로 10년 이상 석유 생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광구 지분은 삼성물산과 석유공사 각 30.8%, Sinopec 화북분공사 30%, 난천광업투자공사 8.4% 등으로 삼성물산이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소규모 광구이지만 한국기업이 운영권자로서 직접 탐사해 석유 발견에 성공했고, 생산 유정 굴착과 생산시설 건설 등 개발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2012년까지 단계적 투자를 통해 탐사 및 개발광구 15개, 생산광구 5개 등 모두 20개 광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19>